



인간과 하천  
 . 4  
 River & Culture

일러스트레이터 김도연



김정현 | 동화작가  
 (kimskorean@naver.com)

## 하천과 동화 강물과 바닷물

하늘나라의 떡구름이 지구에 있는 강물과 바닷물에게 내려다보며 그곳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한테서 너희들 가운데 누가 더 사랑을 받으며 좋아하더냐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바닷물이 먼저 대답하기를 “나를 제일 좋아해요.”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뒤이어 강물이 말하기를 “아니에요, 나를 좋아해요.” 했습니다.

바닷물은 강물의 말에 화를 냈습니다.

“아니야! 나예요 나!”

그리고 강물을 흘겨보았습니다.

강물은 바닷물이 화난 모습으로 흘겨보는 것에 상관없이 또 나서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나예요! 형아는 모두가 싫어해요. 무서워서 싫어한다구요.”

“뭐라구 이것이야?”

바닷물은 강물에게 당장 때리기라도 하듯 험악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하늘나라 떡구름은 강물과 바닷물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형이고 강물은 아우였습니다.

둘은 지구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내가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좋다는 데서 넓게 지구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닷물은 지구의 반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비록 바닷물보다 넓지 않고 좁게 살고 있어 도 지구상의 모든 것들한테 누구보다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 사랑을 받고 좋다는 말을 듣는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자부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강물은 화낸 형아를 비웃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며

“형아는 어린이들이 무섭다구 안해? 그리고 짜다고 몹시 싫어하는 것 몰라? 흥!”

“뭐라구?! 야! 너 그것 말이라고 하나? 너 여름에 어린이들이 새때처럼 나한테 몰려 와서 노는 것 못 봤어?”

“나도 그랬어! 나한테도 많이 와서 해엄치며 즐겁게 놀았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반에 반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

“그렇지만 겨울엔 한 명도 안가지 않아? 그래서 형아는 겨울이면 어른들도 잘 안 와서 외롭다구 하지 않았어? 난 말이야, 겨울에도 어린이들이랑 어른들이 많이 오는 거야. 그건 내가 얼음판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썰매 타러 스케이트하러 좋아라 하고 왔어. 그걸 보고 형아는 샘도 냈지.”

바닷물은 강물의 말에 뭐라고 더 말을 하지 못하고 멍청하게 먹구름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먹구름 엄마는 말했습니다.

“바닷물한테는 할아버지, 아빠, 엄마한테 좋아하는 걸 주는 게 많아.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많이 줘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특히 엄마가 얘기를 놓고 하였을 때 꼭 먹는 미역이 있는데 이 미역을 바닷물이 만들어 주는 거다. 그러니 네 형아도 지구에서 매우 좋아할 한단다.”

“할아버지와 아빠한테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강물은 물었습니다.

이 말에 먹구름 엄마는 금시 대답하기를

“할아버지는 해삼과 굴이다. 그리고 아빠는 송어랑 전복을 좋아해서 자주 바닷물을 보러 오고 했어. 또 어린이들한테는 바닷물이 주는 오징어가 있는 것이다.”

강물은 먹구름 엄마 말에 지지 않았다는 것인지 계속 대드는 말을 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아빠들이 나한테 와서 붕어랑 쏘가리, 메기 등등을 잡아 가는 걸 좋아했어요. 엄마들이 얘기를 낚았을 때는 잉어랑 가물치를 잡아 가는 걸 좋아했고 할머니는 미꾸리지를 내가 있는데서 잡아 오는 걸 매우매우 좋아했어요. 그러니 내가 형아보다 좋다구 한다는 거 아니예요?”

먹구름 엄마가 강물이 바닷물보다 자주 자기를 좋아한다는 말에 언짢아하였습니다.

그것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형인 바닷물한테 양보하는 태도가 없어서였습니다.

먹구름 엄마는 달래듯 강물에게 말했습니다.

“너 바닷물더러 짜서 어린이들이 싫어한다구 했지? 너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물이 주는 소금이란 게 있다. 그 소금이 없으면 엄마랑 아빠랑 모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김치를 만들어 먹지 못하는 거야. 그런 소금 때문에 사람들은 바닷물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이다.”

“그건 그렇지만 나하구 언제나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나무랑 꽃이랑 갈대숲들은 바닷물이 오면 겹을 먹고 또 함께 있으면 말라 죽고 하여 매우매우 싫어했어. 그들은 형아를 악마라 했어.”

“똥이?!”

바닷물은 또 화가 났습니다.

바닷물이 왈칵하는 버릇은 순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시 부드러워지는 데가 있었습니다. 먹구름 엄마는 그런 성질을 잘 알고 있어서 아우인 강물이 이해하고 양보하는 모습이 있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우인 강물은 고집이 대단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모진 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물이 한번 화라도 낸다면 자기와 이웃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김도연

꽃과 나무랑 모든 것을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강물이 가끔 난폭하게 보여 준 행동에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강물이 난폭하게 보여준 행동은 사람들이 흉수라 하였습니다.

흉수가 나면 논과 밭에 자란 온갖 것이 망가지고 하여 슬퍼하고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논과 밭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쌀이랑, 콩이랑, 온갖 곡식은 물론 무, 배추 등 반찬거리가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과 밭을 강물이 흉수를 일으켜 망가뜨리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보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농사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고 하면 누구도 슬퍼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물은 거북이에게 “내가 좋으냐? 바닷물이 좋으냐?” 물었습니다.

거북이는 대답했습니다.

“난 둘 다 좋은 거야. 둘 중에서 그래도 어느 쪽이 더 좋고 하면 나한테는 그런 건 없어. 털끝만큼도 어느 쪽이 좋다고 말할 수 없대야!”

마침 곁에 있던 연어가 냉큼 나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그래! 뉘가 더 좋다고 할 수 없어!”

거북이와 연어는 바닷물과 강물 어느 쪽이든 좋아했습니다. 늘 바닷물과 강물과 함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어가 새끼를 가지려고 알을 낳을 때는 꼭 강물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거북이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새끼를 가지려 알을 낳을 때는 강물이 가까이에서 돌봐 주었습니다.

연어와 거북이가 새끼였을 때 무럭무럭 자라는 것에는 바닷물이 늘 도와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아는 거북이와 연어는 어느 한쪽도 더 좋다니 뉘니 조금이라도 편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바닷물은 나 때문에 많은 물고기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물고기가 사람들에게는 많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도 잘 알

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강물보다 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는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바닷물은 강물의 형이라는 자존심에서 큰소리치거나 자랑하는 일은 가끔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 있으면 왈각하는 성급한 감정을 드러내 보이는 게 흠이었습니다.

바닷물보다 늘 내가 지구상의 모든 것들한테 사랑받는다는 자랑만 일삼는 강물은 가끔 난폭하게 구는 흠이 있었습

니다.

이러한데서 하늘나라에 있는 먹구름 엄마는 지구의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들 가운데 누가 더 좋으냐고 하면 어느 한쪽이라도 <나>라고 나서지 않고 되레 양보하는 모습으로 <나> 아니고 <형아야> <동생이야> 하는 말을 듣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우애라고 말합니다.

우애는 형과 동생 간에 서로 양보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

